

[로스쿨 합격기]

주관적이지만 솔직하게 써 본 합격 수기

백 국 현

- 경기 수원 유신 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I. 들어가며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합격수기를 쓸 좋은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4기로 2012년에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에 2번의 로스쿨 입시를 치른 바 있어서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합격수기 자체보다는,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쁜 마음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에 이르는 2년에 걸친 저의 수험 생활에서의 경험과 최근까지 주변에서 준비하는 지인들의 소식을 종합하고, 제가 입시 과정에서 느낀 많은 것들을 첨가하여 로스쿨 입시를 위하여 조언해드리는 방향으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저는 법학이 아닌 비법학 전공으로서 졸업 후 1년 만에 바로 로스쿨에 입학한 케이스이므로, 저와 다른 위치에서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볍게 읽으시면서 본인이 취하고자 하는 부분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은 일반적인 다른 합격수기와 비슷하게 GPA, 공인영어, LEET, 논술,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지만, GPA의 경우에는 특별히 학벌이라는 정성적 요소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해 보았습니다.

II. GPA와 학벌의 문제, 답답하지만 길을 찾아보자.

GPA와 공인영어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요소로서 많은 로스쿨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선언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대학 생활에서의 학생의 성실도를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GPA의 경우에는 대학 학부별로 그리고 과별로 학점(GPA) 산정하는 방식이나 학점 주는 비율이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심지어 과목별로, 그리고 교수별로도 학점 비율이 다르기에, 이것이 완전히 공정하거나 객관적인 요소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로스쿨 입시에서도 GPA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로스쿨 입시에 있어서 담당자 분이 학점만을 보기 보다는 출신 대학을 보는 것도 이러한 GPA의 비객관성 및 허구성 때문인 탓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학벌을 보는 풍토가 또 일부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방대 출신이신 분들에게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로스쿨 입시 담당자 분들의 입장에서는 대학이라는 1차 관문에서 이미 고등학교 시절의 성실도나 기본적인 지적 열정이 반영된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GPA라고 해서 항상 같은 취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서울 최상위권 대학에서의 중상위권 학생이 반드시 지방 대학에서의 중상위권 학생과 같은 정도의 성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일견 타당하면서도 로스쿨이 학벌을 따진다면, 결국 이는 고등학교 수능을 조금 못하거나 입시에 약간 실패한 이유에 불과한 부족한 학벌로 인하여 법조인의 꿈을 접어야 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듣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금 솔직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드리자면, 제 주변에서는 올해에도 LEET 고득점을 하고도 단지 학벌 때문에 1차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학벌 중심 문화는 로스쿨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신다면, 이 점을 고려해서 입시를 도전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아무리 지방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지방대 로스쿨 지방대 로스쿨 중에 사립 로스쿨의 경우에는 학벌을 크게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스쿨이 어떠한 학부 출신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는 법률저널이나 법률신문 등에 나오는 각 로스쿨 별 입시 자료를 보는 것이 좋은 참고자료가 됩니다. 제가 법률저널에서 “로스쿨, 어떤 이들이 들어갔다.” 라는 주제로 매주 특집 코너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각 로스쿨 별 출신 대학을 표로 잘 정리해 놓은 코너인데, 이러한 표를 통해서 이 로스쿨이 자신이 나온 학교 출신을 최소한 한 명이라도 뽑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학벌에 대한 최소한의 벽을 확인할 수 있는 중

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나마 GPA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학점에 대한 설명을 마칠겠습니다. 우선은 어느 대학에 다니고 계셨든지, GPA가 90점 이하라면 조금은 감점요인이 될 수 있기에, 9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분발하시라고 하고 싶네요. 전 사실 학점은 그다지 좋지 않아서, GPA를 준비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도 마지막 학기는 공대에서 받을 수 있는 성적으로는 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점을 잘 받는 한 가지 중요한 노하우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학점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각자만의 노하우가 있기에 많은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누구나 동의할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조별 과제와 개별과제가 쏟아질 때에 어느 한 것에 너무 치중해서 어떤 한 과목 성적 관리에 실패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편 혼자서 공부를 잘 안하게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도서관에 있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혼자 집에 있으면 공부를 안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도서관의 분위기가 답답하다고 뛰쳐나오지 마시고,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의지를 단단히 하시고 도서관에 앉아있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III. 공인영어의 문제, 꾸준한 노력과 요령이 필요하다.

학점 이야기가 꽤 길어졌지만, 영어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공인영어 역시 로스쿨 별로 반영비율이 다르기는 하지만 안 보는 로스쿨은 없습니다. 따라서 목표 로스쿨이 뚜렷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공인영어 역시 좋은 성적을 거둘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공인영어를 잘 받기 위해서도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서울대에 진학할 것이 아니라면 주로 토익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저 같은 경우 로스쿨 입시에 두 번을 도전하면서 토익도 준비해보고, 텡스도 준비해 보았는데, 텡스의 경우에는 기초가 매우 탄탄하지 않으면, 어휘의 양이나 문제의 난이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점수를 올리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생각입니다. 텡스에 비해 비교적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토익이지만, 토익 역시 점수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점수를 따기는 어려운 시험이기에, 고득점을 따내기는 어렵습니다. 토익의 경우 보통 800점은 쉽게 넘기는데, 900점 이후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에 외국어 영역을 2급 이상 맞을 정도로 공부한 분들이라면, 약 800점 정도의 성적까지는 학원 종합반을 통해 약 한두 달의 집중학

습을 통해 어렵지 않게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800점 이후로는 LC/RC 각 파트별 문제풀이를 통해 자기가 취약한 파트를 파악하여, 학원 단과반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종로에 있는 유명 학원의 종합반을 한 두달 다녔더니 800점은 어렵지 않게 넘었는데, 그 이후로 혼자 공부하다보니 성적이 오르지 않아 다시 학원을 등록했는데요. 부족한 LC와 시간이 부족해 항상 마지막 지문을 찍고 나오곤 했던 독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단과반 학원을 다니기도 했고, 그 학원을 통해서 구성한 스터디를 통해 반복 학습을 꾸준히 하였던 것이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 입시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매달 꾸준히 토익이나 텡스 등을 보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IV. 중요한 LEET의 문제, 운과 노력이 필요하다.

LEET는 정량적인 팩터 중에 노력과 시간만 들이면 누구나 올릴 가능성이 높은 학점이나 영어와는 달리 1년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시험이기에 이러한 LEET의 성적은 사실상 다른 모든 요소 중에서도 특히 1차 합격의 당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LEET를 고득점한다는 것은 최소한 면접을 볼 기회는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 경험과 주변에 입시를 겪은 많은 친구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LEET의 경우, 들인 노력에 비례하여 성적이 향상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제 경우에는 2년간 리트를 준비했으나 첫 번째 리트 시험보다 오히려 두 번째 리트 시험에서 더 나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리트와 논술이 지식의 측정이 아닌 일명 법학적성능력이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준비만으로 쉽게 오르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시험이란 특성상 처음보다 두 번째 볼 때에 오히려 긴장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편, 갈수록 높아지는 LEET의 난이도와 더불어 LEET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오랜 수험 경력 및 투자 시간도 성적 향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LEET 준비가 반드시 운에 맡겨지거나 타고난 법학적성능력에 좌우된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언어영역의 경우, 언어영역은 아직 LEE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하면 먼저 수능 언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수능 언어 기출문제나 LEET나 같은 출제기관인 평가원에서 출제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만큼 검증된 문제가 모여져 있음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능을 공부하

는 고등학생 중에서도 언어 공부를 위해 LEET 기출문제를 푸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수능 기출 문제를 풀 필요성이 더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 강의를 들으면서 나누어 주시는 독서노트장좌를 통해 이러한 수능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곤 했었는데, 이렇게 검증된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언어의 감각을 조금씩 기르고, 상식도 늘린 후에, LEET 역대 기출문제를 풀어본 것이 제 나름대로는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자신의 출신 학과에 따라서 언어 영역의 다양한 출제분야 중에서 특히 독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러한 방면의 상식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 서적을 읽는 방법을 통해 늘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늘이기 위해서 단기간에 많은 독서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 강사분의 독서노트를 통해 지문들을 학습하면서 부족한 독서를 조금이나마 커버하고, 언어영역의 감각을 익혔습니다. 한편,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실제 시험과 맞춰서 풀어봄으로서 자신의 현재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풀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내가 소화해서 자신 있게 문제를 풀어낸 지문과 문제 종류를 확인해두고, 풀었음에도 정답을 맞히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간과했기에 오답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현재수준에서 맞는 정답 개수의 목표를 선택하고 이러한 목표 점수를 높여가는 훈련을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평소 시험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만점을 목표로 삼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 문제라도 더 풀고, 한 문제라도 더 맞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문제에 손을 대기에 정확히 답을 맞히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리영역의 경우에는 기초과정의 경우, 일상적인 문장을 논리 기호화해서 문제를 단순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리 기호를 통한 문제풀이는 실수를 최소화하고,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기초과정을 벗어나면, 출신학과에 따른 공부방법이 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스터디를 하면서 지켜본 결과, 법대 출신인 분들의 경우 법학 관련 문제는 쉽게 풀어내는 반면, 수리 추리문제를 어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기출문제와 씨름할 수도 있긴 하지만, 먼저 수리적인 기초를 쌓고 도전하기를 추천합니다. 비법대의 경우에는 수리추리분야에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적응하는 반면, 법학분야에서 문제가 나올 경우 용어의 문제로 헛갈려서 오답을 체크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이럴 때 다짜고짜 두꺼운 민법 책을 펼치

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학원 강좌를 통해서 시험에 나올만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법학분야의 문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버거울 수 있으므로, 사설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를 스터디를 구성하여 풀어보고, 오답문제를 함께 풀이 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제 경우에는 좋은 공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논술은 나중에 면접하고도 연결되는 만큼, 다른 과목보다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의 경우에는 특히 자신이 쓴 글은 자신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코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어진 문제에 정확히 대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처음 논술을 접하는 분들 중에는 간혹 문제에서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실수를 논술 공부를 처음 시작한 무렵에는 저도 모르게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실수는 논술 문제를 채점하는 교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악의 점수를 주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논술은 반드시 써보고 침묵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김중수 선생님의 강좌를 추천하고 싶은데, 매우 꼼꼼하게 침묵해주시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간 내에 논술을 써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하는 것은 다른 LEET 과목과 다르지 않습니다.

V. 자기소개서, 왜 뽑아야 하는지를 설명하자.

LEET의 경우, 시험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그리고 자신이 풀어본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가에 따라 평소에도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성적보다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운이 상당부분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그에 비해 자기소개서는 오랜 시간을 두고 자신의 인생을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의 길로서 이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누구든 얼마나 공들여서 투자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유념해야 할 점은 이 자기 소개서를 읽는 사람의 입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글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스쿨 입시에서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일 것으로 예상되는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로스쿨에서 공부를 성실히 하는 학생이고, 논리성을 갖춘 사람이기에 변호사 시험을 한 번에 붙겠구나.'하는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써야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어떠한 내용을 쓸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증거를 중요시하는 법조계에서의 문화와, 어떠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논리의 기본 명제를 생각하신다면 이는 당연하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순수하게 공부만 하신 분들의 경우, 정말 무엇을 써야할 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 그러한 공부하는 동안에 느꼈던 이야기를 지루하게 늘어놓기 보다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본인에게 인상적이면서도 상대방이 보았을 때에 인상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I. 면접, 자신을 알고, 문제를 알자.

면접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지는 부분입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접 준비 방법은 크게 인성과 지성 두 가지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선 인성 면접 준비 방법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며, 자신이 왜 로스쿨에 가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자기소개서에 자신이 기록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특허 전문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 생겨, 로스쿨에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부 수업과 특허 출원 경험을 통해 특허 출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실감하고, 전문적인 특허 용어에 대해 잘 모르는 제품 개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 전문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부 과정에서 기계 공학적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법학교육을 받는다면, 특허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허분쟁이 국제적인 기업 간의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회적 현상을 접하면서, 이러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 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법학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저의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입시에 도전했지요.

아마 공대 분들의 경우에 저와 같은 생각으로 로스쿨 입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실제로 로스쿨 입시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공대 출신이라고 하면 제일먼저 떠올리는 것이 공대생이면 거의 백이면 백 지적 재산권, 특허, 특허 전문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대답하면, 왜 지적 재산권 전문인 변리사가 되고자 하지 않고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지를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변리사 시험의 어려

움을 언급하기 보다는, 로스쿨이 가지는 장점과 변호사와 변리사의 차이점을 언급하는 것이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는 변리사와는 달리 소송을 대리할 권한이 있기에, 소송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변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는 점을 먼저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꽤 높은 확률로 변호사의 길이 열릴 뿐 아니라, 로스쿨에서 체계적인 법률 교육 과정을 거쳐서 인성과 지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공계 분들이나 혹은 지적 재산권 분야에 흥미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제 답변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답변으로 만들어 준비하신다면 특히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면접은 말 그대로 얼굴을 맞대는 것으로, 면접관이 나의 모습, 자세, 표정, 말투와 습관이 모두 관찰하고 그것을 기초로 나의 답변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나를 관찰하고 나는 코칭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앉아있는 자세나, 말투나 습관 등은 결코 단시간에 고쳐지기 어렵고 혼자서는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구성원을 가진 면접스터디나, 면접강의 수강들을 통해 지적받고 교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다른 합격생들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성 면접의 경우에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하고 이에 대한 논거를 논리정연하게 제시하고 논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면접에서 정답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과는 달리, 면접에는 교수님이 예상하는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범 답안대로 대답하는 학생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성 면접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이 지성 면접에서 교수님이 생각하는 모범 답안대로 대답해서, 교수님의 큰 관심을 끌었다는 경험담을 많이 들었고, 그러한 경험담을 말한 지인의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조금 불안했던 다른 요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 역전의 기회인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어 부디 스펙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원하는 로스쿨에의 진학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VII. 마치며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다보면 중간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 특히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요. 중간 중간 스트레스와 체력

을 잘 관리하는 것은 모든 수험생활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로스쿨 입시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면접 일정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수험 생활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남은 기간 체력과 정신적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부디 로스쿨 입시에 성공하시길 바라며, 제가 위에 열거한 요소들이 조금이나마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